

웰메이드 예술영화와

한 해 마무리~

2024년 마지막을 장식하는 다채로운 영화 한마당이 광주극장에서 펼쳐진다. 영화계 거장 레오스 카락스와 알리제 로르바케르 감독 작품을 콜라주한 영화부터 국내외 영화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명작까지 다양한 작품들이 관객들과 만난다.

●광주극장 연말 개봉작

영화 예술 존재론 고찰하는 자전적 에세이 작품부터 칸 영화제 주목 받은 스릴러·재개봉 명작까지 '다채'

먼저 오는 18일 개봉하는 '알레고리, 잇츠 낫 미'는 오늘날 영화 예술의 존재론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레오스 카락스 감독의 자기 고백적 영화 '잇츠 낫 미'와 알리제 로르바케르 감독이 연출한 단편 '알레고리'를 콜라주했다. 올해 칸국제영화제에서 첫 선을 보인 '잇츠 낫 미'는 레오스 카락스 감독의 개인사, 40년 필모그래피, 정치적 사건 등을 엮어낸 만든 자전적 에세이 영화다. 7살 '제이'의 시선으로 펼쳐지는 '알레고리'는 파리라는 대도시를 배경으로 플라톤의 '동굴의 우화'를 환상적으로 펼쳐 보이는 작품이다.

의 결정판이다. 같은 병원에 입원한 스티븐 '로이'가 호기심 많은 어린 소녀 '알렉산드리아'에게 전세계 24개국 비경에서 펼쳐지는 다섯 무법자의 환상적인 모험을 이야기해 주는 영화다. 총 제작기간 28년, 캐스팅 9년, 장소 헌팅 19년, 촬영 기간 4년, 전 세계 24개국 로케이션이라는 역대급 기록이 말해 주듯 나비 산호섬, 주홍빛 사막, 하늘과 맞닿은 호수, 끝없는 계단, 수상 궁전까지 보면서도 두 눈을 의심하게 하는 신비한 장소들이 관객들을 몰입시킨다.

29일에는 영화 '모든 것은 아르망에서 시작되었다'가 개봉한다. 방학을 하루 앞둔 날, 아이들 사이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의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모인 어른들의 비밀을 따라가는 심리 스릴러다. 제7회 칸 영화제에서 최고의 장편 데뷔작에 수여하는 황금카메라상을 석권하며 주목 받았다. 영화는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되고 모호해지는 '진실'의 본질을 날카롭게 탐구한다.

올해 마지막 날에는 4K 리마스터링 작업을 거쳐 11년 만에 재개봉하는 '밀레니엄 탐보'를 만나볼 수 있다. 타이베이의 내온 불빛 아래, 방황하는 청춘 비키가 사랑을 통해 자신을 발견해 나가는 세기말 리브레타다. 제5회 칸 영



위부터 '알레고리, 잇츠 낫 미', '힘을 낼 시간', '모든 것은 아르망에서 시작되었다' 스틸컷

화제 경쟁부문 초청작으로 첫선을 보인 후 유수의 평단과 언론으로부터 압도적인 극찬을 받았다.

상영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광주극장 네이버카페를 확인하면 된다. /최명진 기자

빛고을서 펼쳐지는 '겨울 연극 페스티벌'

프로젝트87·극단 좋은친구들·인드림컴퍼니 주관

19일부터 28일까지 예술극장동서 3개 작품 무대

추운 겨울 따스함을 선사할 다채로운 연극 공연이 광주 시민들을 찾아온다. 프로젝트87이 주최하고 프로젝트87, 극단 좋은친구들, 인드림컴퍼니가 주관하는 '겨울 연극 페스티벌'이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약 2주간 예술극장동(동구 중앙로 149-2)에서 열린다. 공연 기간 무대에 오를 작품은 '지상 최후의 농담'(사진), '분장실 청소', '크리스마스에 30만원을 만날 확률' 총 3개로 모두 오세혁 작가가 극본을 썼다. 노희철·정경아·노광훈·이영환·이성호·김민성·송민중·이지은·최이노·임현수·최준서 배우가 참여한다.



'분장실 청소'는 어려운 재정 상황으로 공연을 이어가기 어려운 지하 극장 철거를 하러 온 두 용역과 배우가 나누는 이야기다. 아무런 힘이 없는 배우는 이러한 상황 속 극장을 지키고 싶은 마음, 배우로서 느끼는 현실의 어려움, 그리고 자신이 연극을 사랑하는 이유를 표현한다.

먼저 오는 19-21일 공연되는 '지상 최후의 농담'은 포로수용소를 배경으로 펼쳐진다. 10분에 한 명씩 끌려나가 죽어야 하는 처참한 상황 앞에서 웃으며 멋지게 떠나고 싶다는 생각으로 농담을 시작하는 포로들의 이야기다. 이들은 어차피 다가올, 하지만 최대한 망각하고 싶은 삶의 마지막을 향해 지상 최후의 농담을 던진다.

나머지 두 개 작품은 24일부터 28일까지 무대에 오른다.

'크리스마스에 30만원을 만날 확률'에선 생활고 때문에 떨어져 살게 된 가족이 등장한다. 이들은 우연히 같은 날 급하게 30만원이 필요하게 되고, 거짓말을 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돈을 빌리게 된다. 하지만 좀처럼 돈은 구해지지 않고, 서로를 향한 거짓말은 늘어나기만 한다. /최명진 기자

ACC 융·복합 미디어아트 전문가 워크숍 '호평'

15개국 창작·기획자 25명 참여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의 '2024 ACC 글로벌 전문인력 워크숍 IV'이 성황리에 마무리된 가운데 참여자 만족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CC는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일까지 ACC 및 국내 문화예술기관(광주·서울 등)에서 아시아 지역의 잠재력 있는 창작자와 기획자를 대상으로 '2024 ACC 글로벌 전문인력 워크숍 IV (융·복합 미디어아트)'를 운영했다.

이번 워크숍은 한국과 아시아의 문화 예술분야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국제적 역량을 강화하고자 기획된 'ACC 글로벌 전문인력 워크숍'의 4번째 시리즈다. 특히 이번에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한국의 융 복합 미디어아트'를 주제로 중국·일본·홍콩·필리핀·파키스탄·대만·몽골 등 아시아 15개국 융·복합 미디어아트 분야 창작자와 기획자 25명을 선발해 진행됐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ACC의 전시·공연·레지던시와 광주지역 미디어아트 사례 강의·현장체험, 서울·부산의 미디어아트 콘텐츠 현장체험과 각 기관 전문가 강연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워크숍 사례 연구 중 하나로 현재 ACC에서 전시 중인 '딜리버리 댄서'의 산 인바스의 김아영 작가 강의도 참여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워크숍 종료 후 진행된 참여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25명 중 24명이 '매우 만족', 1명이 '만족'한다고 대답했으며, 만족도는 92%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강현 전당장은 "ACC는 아시아의 여러 국가와 호혜적인 입장에서 융·복합 미디어아트 분야의 전문가들의 교류와 성장을 위해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적극 기획 운영할 방침이다"며 "다양한 교육을 통해 아시아 문화예술의 허브 역할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광주박물관 특별전 연계 교육 '토우야 반가워!'

겨울방학 초등생 동반가족 대상...내년 1월7-23일 매주 화·목·토

국립광주박물관이 겨울방학을 맞이한 초등학생 동반 가족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 '토우야 반가워!'를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특별전 '영원한 여정, 겨울방학 초등생 동반가족 대상...내년 1월7-23일 매주 화·목·토'와 연계하여 진행된다.

특별한 동행: 상형토기와 토우장식 토기의 연계 교육으로 내년 1월7일부터 23일까지 매주 화·목·토요일 오후 2시부터 9분 동안 진행된다. 교육은 다채로운 상형토기와 생



생한 토우 장식을 통해 고대인들이 먼 길을 떠나는 소중한 이에게 주는

물건과 이야기를 살펴보는 이론 수업으로 시작된다.

이어 천연점토를 활용하여 자신에게 소중한 일상의 순간을 가족과 함께 만들어보는 체험활동 이후 특별전을 자율 관람한다.

'토우야 반가워!' 신청은 국립광주박물관 누리집에서 사전 접수하면 된다. 회당 30명씩 선착순 마감.

/최명진 기자

www.kjdaily.com 

◀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p>시내 지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p>지방 지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포지사 061)278-0740 · 남문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시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평지국 371-9584 · 수원지국 955-0451 · 광신지사 944-0993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